

### 대구 운불련 창립 26주년 기념대법회 봉행

대구 운전불자기자연합회는 3월 20일 대구 동도 총전소 2층 자비원 법당에서 창립 26주년과 호출택시 출범 1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김주본 대구 운불련 회장은 “일본의 NK택시를 능가하는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는 호출택시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념대법회에는 동화사 부주지 무위 스님과 류병선 동화사 신도회장 등 교계 인사들 외 지역 총선 예비후보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86년 창립한 대구 운전불자기자연합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기치로 내걸고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1만 3000명 십시일반 결실

### 정토사관자재회, 4월 1일 울산 자제병원 상량

불교계 최초의 완화의료 전문병원 이 대들보를 올리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자제병원’ 상량법회를 4월 1일 오전 10시 봉행한다.

자제병원은 불교계 최초의 완화의료 전문병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자제병원은 2013년 말 완공예정으로 호스피스병동 완화의료병동 재활병동 요양병동 승가병동 등을 갖춰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 이상 환자, 3기 말 암환자 등을 수용하게 된다.

상량식에서는 식전행사로 하유 스님의 집전 아래 사물놀이 지신밟기가 진행된다. 본행사에서는 김경일 동국대 교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불독, 이사장 인사말,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격려사,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격려사 등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울산광역시장, 울주군수, 자제병원 홍보대사 김혜옥 씨도 참가해

축사를 전한다.

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완화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한다.

상량식 이후 3부 행사에서는 인드라 스님과 함께 하는 ‘나도 가수다’ 공연 무대가 마련되며 노력봉사 갤러리 초대전도 공사현장에서 진행된다.

불교최초 완화의료전문 자제병원은 1998년 불교봉사단체 15명의 구성원으로 시작한 자비회(現 정토사관자재회)가 후원회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1만 3000여 명 십시일반 힘으로 건립 중이라 그 의미를 더한다.

정토사관자재회는 2000년 충북 청원군에 15병상의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개원한 바 있다.

2003년 서민들을 위한 완화의료 전문병원의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에 9,000여 평의 자제병원 건축 부지를 마련했다. 예산 규모는 총 70억원 수준이다.

자제병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108병상(호스피스병동, 완화의료병

동, 재활병동, 요양병동, 승가병동 등)으로 완화의료 전문병원으로는 최대 규모다.

자제병원의 입원대상은 불치병 환자 중 중증 이상의 환자, 3기 말의 암환자 등으로 전문 호스피스 돌봄 및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전문임상상담사의 영적 돌봄이 진행된다.

정토사관자재회는 2007년부터 울주군 자제병원 부지 인근에 마하보디교육원을 설립해 불교전문 호스피스 인력을 양성해 영적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능행 스님은 “자제병원이 상량식을 봉행하기까지는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이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잠터를 실천하는 터전’을 염원하는 1만 1500명의 국내외 불자들의 후원과 기도,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자제병원 상량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온 시간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상량대법회 현장에서 소중한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다시 힘을 얻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 정호대종사 제64주기 추모재

### 선운사, 석전문도회 100여명 추모다례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로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초대교장과 일제 강점기 조선불교교정(現 종정)을 역임한 영호당 정호 스님의 64주기 추모제가 3월 21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봉행됐다.

석전문도 100여 스님이 동참한 이날 추모제에서 도명 스님은 추모의 글을 통해 “석전대종사는 한국 근대불교의 선구자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한편 중단이 어지러울 때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신 큰 어른이자, 근대문학의 텃자리를 제공하신

문학인들의 스승이었다”고 말했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律)·화엄(華嚴)종주인 백파 금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교(敎)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었다.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교정(現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영도했다.

또 불교의 진일화에 반대해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강원(大圓佛敎講院)을 설립해 청담·운허 스님 등과 문인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김달진 김어수 등을 양성하고, 저서로〈석전시초(石顚詩?)〉〈석림수필(石林隨筆)〉〈석림초(石林抄)〉등을 남겼다.

스님은 1919년 기미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 대표로 참여해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월 21일 영호당 정호 스님(석전 박한영 스님) 제64기 추모제에서 166 조사전을 참배하는 석전문도스님들

### 군산불교신도연합회, 김수현 회장 취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군산불교신도회는 3월 22일 군산불교회관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김수현 회장(사진)은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불자상을 정

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허양 회장에 감사장도 증정됐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 성공문전 전북포교사단장 등 신도회임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군산불교 발전을 위한 발원 등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우석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 불심 깊던 광개토대왕처럼 전법포교를

####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광개토대왕비문' 탁본특별전시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사찰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광개토대왕비문 탁본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대학은 3월 21일~5월 15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을 전시한다.

한국불교대학이 소장한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은 회주 우학 스님이 3년 전 중국 사찰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실물크기 탁본을 소장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학 스님은 “광개토대왕은 평양성에 9개의 사찰을 건립했던 불심 깊은 왕이었다”면서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광개토대왕 같은 훌륭한



우학 스님이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을 설명하고 있다.

한 분이 선출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학은 탁본 보전을 위

해 향후 10년 마다 한 번씩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취임식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유진)은 3월 21일 경주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총동문회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취임식은 불교문화대학원 동문, 동창회 인사,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내빈소개, 공로패 수여, 이임사, 취임사, 축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이임회장 심산 스님은 이임사에서 동문들에게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쏟아 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신임회장 효신 스님은 취임사에서 “한국 불교 미래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재양성과 불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취임식

토 건설”이라며 “맑고 향기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중 경주캠퍼스 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지금의 불교문화대학원을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빛나는 불교의 도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격려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취임식에 이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회장 광진 스님 취임식도 함께 거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